

01 교회소식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2023년 전반기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보호하심에 감사드리며 성찬식으로 더욱 영적 성장을 다짐한 맥추감사주일.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리즈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사랑을 주고받으며 비밀스러운 것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친한 벗과 같은 참 재치를 원하신다.

03 기획특집

영의 마음을 이루려면?

우리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켜 영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명백한 비전, 리의 마음은 물론, 본성 속의 비진리와 양심의 악도 발견해 버려야 한다.

04 간증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시력이 0.2, 0.7에서 0.7, 1.0으로 좋아지고 코로나 후유증을 치료받는 등 믿음으로 기도하므로 응답받은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 만민뉴스

제997호 2023년 7월 9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특별한 은총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기쁜 일만이 아니라 꺾은일에도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햇볕과 비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시는 은총이지만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과 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마치 인자한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기대하심으로 아름답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출애굽기 33:16)

## 맥추감사주일 예배 및 성찬식



지난 7월 2일, 우리 교회는 GCN방송(www.gcntv.org)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맥추감사주일 예배 및 성찬식이 있었다. 대예배는 ‘지키시는 하나님’(출 8:22)이라는 제목의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영상설교가 있었으며, 저녁예배는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가 ‘감사의 제목’(시 100:1~5)이라는 말씀을 전했다.

이수진 목사는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십자가 구원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불러 주시고 믿음으로 행할 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아니 될 것은 되고 될 것은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천국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므로 응답과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기를 축원했다.

이수진 목사의 집례로 진행된 성찬식은 각 예배실과 지성전은 물론 온라인 예배에 동참한 국내외 성도들이 함께했다. 성도들은 각 처소에서 인자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준비해 성찬식에 임하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가 넘쳤다.

## 예수교연합성결회 제33회 정기총회 열려



중생, 성결, 신유, 부활, 재림의 오중복음을 전 세계 만민에게 선포하는 예수교연합성결회 ‘제33회 정기총회’가 지난 6월 26일 오후 3시, 대전만민교회에서 개최되었다.

1부 개회 예배는 총무 조대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부총회장 김진홍 장로의 대표기도, 서기 문태규 목사의 성경 봉독, 서승원 집사의 특송 후 부총회장 이수진 목사가 ‘참된 하나님의 종’(렘 2:5~1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2부 의회는 의장 이수진 목사의 인도로 개회 선언 및 개회 선언문 낭독, 회순 통과, 임원 선거, 건의안 및 청원서 접수 수리, 감사 보고, 기타 안건 토의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총회 임원은 총회장에 이재록 목사, 부총회장에 이수진 목사와 김진홍 장로, 총무에 조대희 목사, 서기에 문태규 목사, 부서기에 임학영 목사, 회계에 이미영 목사, 부회계에 박형렬 목사가 선출되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16)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통해 영원히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비밀스러운 것까지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벗과 같은 참 자녀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5장에는 이러한 사랑을 주고받았던 에녹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산 채로 들림 받았습니 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에서 자유 할 만큼 온전히 성결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 있을 심판에 대해 예언한 것을 보면(유 1:14~15) 하나님께서 에녹과 얼마나 깊은 교통함과 사랑을 나누었는지, 비밀스러운 대화들을 나누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종 선지자란, 하나님을 대변해 그 뜻을 선포하는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성결하고 하나님 마음을 닦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비밀스러운 일을 미리 알리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경작하시는 오랜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택해 비밀스러운 일들과 앞일에 대해 알려 주셨을까요?

## 1.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알려 주신 하나님

노아와 그의 가족은 대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40일 동안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이 많은 비가 쏟아졌지요. 온 세상이 물에 잠겨 높은 산들이 다 덮였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창 7장).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 방주에 들어온 동물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홍수를 대비해 방주를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방주를 미리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과 이로 인해 모든 사람과 동물이 멸절될 것, 홍수에 대비해 방주를 짓되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얼마만 한 크기로 어떻

게 만들어야 할 것까지 상세하게 알려 주셨기 때문입 니 다(창 6:13~21).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만 그 비밀을 알려 주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홍수 심판 이후에는 그들을 통해 새로운 인간 경작을 시작하신 것일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인류를 멸절하셔야 할 만큼 죄악으로 관영했던 세상에서 노아만은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며 심판이었던 대홍수를 노아에게만큼은 미리 알려 주시고 행하셨습 니 다. 의인 노아는 장차 대홍수가 임할 것을 알게 되자 사람들이 재앙을 면할 수 있도록 이 소식을 널리 전파했지만, 그 누구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지요(마 24:38~39).

결국 방주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들어갔고 이들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벧전 3:20). 노아만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노아의 행함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고, 하나님께서도 노아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에게 영계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려 주셨습 니 다.

## 2. 아브라함에게 소돔 성의 멸망을 알려 주신 하나님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했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불릴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장하시며 축복해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창세기 18장 17절에 “...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한 마디로 잘 나타내 주고 있지요. 이를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닦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이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엄청난 재앙에 대해 미리 알려 주신 것입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심히 관영해 하나님 공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소돔 성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서 미리 피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일 조카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아브라함이 마음 아파할 것을 아셨기에 그를 배려하신 까닭이었습니다(창 19:29).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 마음을 닦았기 때문입니다. 후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독자, 곧 백 세에 얻은 이삭을 주저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런 중심임을 이미 아셨기에 그를 사랑하시며 비밀스러운 것도 알려 주신 것입니다.

## 3. 시대마다 합당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러한 관계는 시대마다 합한 사람들을 통해 이어져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구약성경에 나오는 예언서들을 기록한 선지자들 곧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미가 등 여러 선지자는 죄악으로 물들어 가는 이스라엘에 장차 임할 심판과 그 후에 이뤄질 회복에 대해 하나님께 미리 듣고 선포했는데, 이 모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만세 전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해 왔고 2천여 년 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사 7:14 ; 눅 1:30~31 ; 미 5:2 ; 마 2:1).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과 고난받으시는 이유가 사람의 죄악 때문이라고 기록돼 있지요. 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실 것까지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 기록된 크고 작은 예언들은 앞으로 일어날 몇 가지 일들만 남기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마 5:18).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http://www.manminnews.com)

만민중앙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 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및 관련 문의: 02-818-7236

**이재록 목사의 부흥성회 설교집**

URIM BOOKS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성경을 보면 오늘날에도 장차 이루어져야 할 말씀들이 있는데, 바로 주님의 공중강림과 7년 환난, 그리고 천년왕국과 백보좌 대심판입니다. 그중 주님의 공중강림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줄곧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사였지요. 이러한 주님의 공중강림과 그때의 징조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다니엘이 기록한 다니엘 9장 20~27절과 12장에는 마지막 때의 비밀이 담긴 칠십 이레에 관한 내용과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각각 말씀합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기록돼 있지요. 이 말씀처럼 오늘날은 다니엘서가 기록되던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최첨단 교통수단과 엄청난 매스미디어, 고도의 과학 문명의 발달로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의 한 권을 기록할 만큼 마지막 때에 관해 깊이 알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대해 훨씬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후세 사람들이 말씀에 담긴 내용과 뜻을 알아서 그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풀어야만 합니다(벧후 1:20~21).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성경 66권을 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 마음을 닦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러한 사람에게 성경에 기록된 비밀스러운 말씀들을 낱말이 풀어 주시고 설명해 주시지요. 마지막 때인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스러운 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 4.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 등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것과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알려 주셨지요. 변화산에 오르실 때도 제자 중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 나누는 장면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본 것을 말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지요. 어느 제자들보다 이 세 제자를 그만큼 믿으셨기에 비밀스러운 것도 보여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셋째 하늘을 보여 주셨고, 향해 중에 배가 파선 될 것과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지도 미리 알려 주셨지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할 때는 환상을 통해 이를 막으시고 유럽으로 방향을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사람을 경작하시는 근본은 사랑입니다.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들어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니 오늘날도 대홍수의 심판을 미리 알고 대비했던 노아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미리 알고 그

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올린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마지막 때를 알고 대비하며 세계만방에 외침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앞으로 될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인간 경작의 역사를 사랑으로 시작하셨고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한 성결을 이루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명 다해 이뤄야 하지요. 바로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으로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온전한 사랑이 임하고 그 사랑을 행함으로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비밀스러운 것들을 깨우쳐 수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양식 삼아 진리대로 행함으로 온전히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영의 깊은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알려 주시며 깊은 사랑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주고받으며 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기획특집

## 세 가지로 구성된 사람의 마음

진리의 마음, 양심, 비진리의 마음

로마서 7장 21~23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 곧 명백한 진리의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의 법’, 스스로 만들어 낸 마음 곧 양심이 있으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

의 법’,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 곧 원수 마귀로부터 심어진 마음이 있지요. 그러므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곧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이 내 마음의 법인 양심마저도 눌러 이기며 죄악을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등 비진리를 행할 때는 자신이 악하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해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본성 속에 숨겨져 있는 비진리와 양심의 악까지도 발견해 버려야 합니다.

### 본성 속의 비진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사람 아담은 생령으로서,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지식만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범한 후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주인인 영이 죽게 되었고 흠으로 창조된(창 2:7) 아담의 마음 안에는 죄가 들어와 변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의 지식으로만 채워져 있던 생령 아담의 마음이 욕도와 같이 기름지고 부드러운 본성을 갖고 있었다면, 범죄한 아담의 마음은 점차 독하고 악한 성분들이 첨가돼 변질한 본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각 사람의 본성은 기를 통해 그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달되는데 사람의 기 속에는 외모는 물론 체질이나 지능, 성격, 심지어 버릇까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타고난 마음 발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성장하면서 어떤 것을 받아들였는지에 따라서 사람마다 마음 발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각 사람의 본성이란 토질과 같은 것으로서 부모의 기를 통해 전해질 뿐 아니라, 성장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깊이 형성된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성 속의 비진리는 스스로 발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 발견해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 양심의 악

그러면 양심은 무엇일까요? 각 사람이 ‘이것이 선이다, 혹은 악이다.’라고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양심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진 본성 속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므로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적질은 대부분 악한 일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 어떤 사람은 바늘 하나를 훔치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가 하면, 소를 훔친 것도 아닌데 그것이 무슨 도적질이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양심의 판단 가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대와 지역에 따라 양심의 기준이 많이 달라

집니다. 한 예로 누구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마다 양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공경하는 방법이 각기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히10:22) 한 대로 오직 선과 진리 자체인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악한 것을 보고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만큼 점차 양심도 악하게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는 만큼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되니 선한 양심을 만들고 영의 마음도 이룰 수 있습니다.

# “시력이 0.2, 0.7에서 0.7, 1.0으로 좋아졌어요!”

전복례 권사 (60세, 2대대 11교구)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에서 컴퓨터로 아르바이트하면서 시력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안경원에서 시력을 측정해 보니 왼쪽은 0.2, 오른쪽은 0.7이었지요.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크면 시력이 더 좋지 않은 눈이 시간이 갈수록 퇴화해 나머지 눈도 나빠진다고 하여 시력 보정 안경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기대한 만큼 선명하게 보이지도 않고 평생 써야 한다는 말에 안경을 사용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2023년 초, 시력이 더 나빠져서 작은 글씨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1월부터 4월까지 진행 중이던 성경 읽기도 글씨가 침침하고 아른거려 초점이 맞지 않으니, 진도가 잘 안 나갔지요. 지인의 큰 글자 성경을 빌려 읽으므로 간신히 기간 안에 완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노안 증세임을 알고, 5월 은사 집회 때 치료받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작정 다니엘 철야에 참석해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마음을 버려 변화되고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였지요.

기도회 끝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하루를 마치는



기도(녹음파일)가 나올 때는 양손을 두 눈에 대고 기도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니 마음이 편안했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했습니다.

이후 5월 26일, GCN방송을 통해 금요철야예배 은사 집회에 참석해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내용을 유심히 들으며 기도 받는데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회춘의 축복도 주옵시며...”라는 내용이 들렸지요.

저는 ‘회춘의 축복이 임하면 내 눈도 좋아지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더욱 간절하게 기도 받았습니다. 기도가 마쳐진 뒤 시력이 좋아졌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 바로 옆에 있던 제품 설명서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글씨임에도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는 작은 성경의 글씨도 또렷하게 보였지요. 안경원에 가서 시력 측정한 결과 왼쪽은 0.7, 오른쪽은 1.0으로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며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코로나 후유증을 치료받아 이제는 무릎 꿇고 걷는데 문제없어요!”

마릿싸 올라노 성도 (47세, 페루 마사마리만민교회)



저는 2020년 코로나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까지 갔었습니다. 다행히 완치 판정은 받았지만, 그 후유증이 너무나 심각해 극심한 골반 통증으로 잘 걸지를 못했지요.

페루 마사마리만민교회에서 신앙생활한 뒤로는 영상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꾸준히 받으며 점차 걸

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릎 꿇으면 골반에 통증이 심해 무릎을 꿇을 수는 없었지요.

그러던 4월 30일, 유튜브를 통해 콜롬비아만민교회 창립 11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해 감사 이미경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받을 때였습니다.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시는데 무릎 꿇고 싶은 마음이 들어 무릎을 꿇자, 신기하게도 전혀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 치료받았다는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와 감동의 눈물이 흘렀지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심하게 꺾인 왼쪽 발목의 통증 사라져 일상을 회복했어요!”

까딸리나 꼬레도르 성도 (25세, 콜롬비아만민교회)



2023년 4월 5일, 실수로 넘어지면서 왼쪽 발목이 심하게 꺾였습니다. 넘어지면서 오른쪽으로 몸을 튼 것이 오히려 더 발목에 무리가 갔고 전신에도 큰 충격을 주었지요.

곧바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 기도(음성파일)를 받아 일어설 수는 있었지만, 통증으로 인해 왼쪽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저는 자주 출장을 다니는데 신발을 자유롭게 신을 수도 없었고, 앉고 설 때나 걸을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도 너무 불편해 계속 신경 써야 했습니다.

4월 30일, 콜롬비아만민교회 창립 11주년 기념 예배 때 통증은 심했지만, 무릎을 꿇고 찬양했습니다. 그 뒤 감사 이미경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받는데 통증이 서서히 사라졌고, 예배가 끝난 뒤에는 마음껏 뒹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치료해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어방동1099-2 JJ빌딩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010-6425-8705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령천서로 57 광명빌딩 7층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3927-7526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6320-5984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547-4194
- 사량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염사면 향관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예천동 650-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장천동 팔마로11-5 3층 ☎061)745-1117, 010-66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청문로 129 향아빌딩 3층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망마로 10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4-5816,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창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6772-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거룡2길 53-1 2층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330-31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9636-797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